

평창 올림픽 개최지 체류형 관광지 육성

문체부, 강릉·평창·정선 테마별 특화 육성 ... 3조3천억 투입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강원도가 레저스포츠 관광 중심지로 육성된다.

▶ 관련기사 3면

또 설악산에는 친환경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동계올림픽특구 종합계획의 마스터플랜도 마련된다. 김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2015 관광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도를 레저스포츠 메카 시터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평창은 대관령 가족휴양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등 가족 휴양과 치유(힐링) 관광지로 특화한다. 경포대가 있는 강릉은 도심 철도 패션 부지를 활용한 문화거리 조성, 강릉아트센터 건

립 및 한국문화(K-컬처)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젊음과 낭만의 여행지로 조성된다. 산악, 계곡이 많은 정선은 예코익스트림 파크, 동강레포츠단지 조성 등 역동적 레저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관계 부처와 협의, 설악산에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 설악산 친환경 케이블카를 명품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기 중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을 변경해 오는 2032년까지 국비와 민자유치 등을 통해 총 사업비 3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 안보·생태 관광지를 육성하고, 강릉을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김중 차관은 “개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자연경관, 휴양, 레저스포츠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창우기자 cwookim@kwnews.co.kr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나눔의 나눔 캠페인”
 기간 2015. 1. 31까지
 참여 춘천시 읍면동, 복지정책과 방문, ARS 060-700-0577
 계좌입금(농협 203-01-548843)
 예금주 강원도공동모금회

· 새얼굴 ·

김동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도회장



김동호(49) 신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도회장은 “발전된 도회를 만들어 정보통신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사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소통해 건설업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회가 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

강릉 출신. 주문진수산고 통신과를 졸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도회 부회장·운영위원을 거쳤으며 현재 명성이엔지 대표. 가족은 안정림씨와 1남1녀. 취미는 음악감상.

아하! 그렇구나

계약해제와 기성금의 지체상금 기산점

Q 발주자 A는 B건설회사와 신축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도급인이 확인, 검사하여 구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 A의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B건설회사는 발주자 A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건설회사는 발주자 A에게 기성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 발주자 A와 B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B건설회사가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 A로부터 확인, 검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위 도급계약에 따라 정한 날에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인 B건설회사가 발주자 A로부터 기성 부분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위 기성부분 대금에 대한 지체상금을 언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부분을 인도한 경우라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검사하여 구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기성검사가 이미 마쳐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공사대금은 그 계약에서 정한 날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기성부분이 이미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지급 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34043 판결).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B건설회사가 발주자 A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A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성부분의 대금에 대한 지체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정부 교부세 정비... 道재정 악화

올 道 전체 세입 18% 차지
940억 줄어... 郡단위 타격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부세' 제도 정비 주문이 자칫 교부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까지 현행 보통교부세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과 특별교부세의 투명성과 집행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자체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들의 주요 재원이다. 문제는 정부 역시 세입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교부세 정비가 자칫 교부세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올해 도 일반회계 규모는 4조 340억원이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7385억원으로 도 전체 세입의 18.3%를 차지한다. 국고보조금(2조3134억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다.

그러나 정부가 교부세를 축소할 경우 세입 감소로 이어져 도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지난해 3조5806억원이었던 도내 전체 교부세는 올해 3조4866억원으로 940억원 감소했다. 도내 평균 재정자립도는 21.5%로 지난해 22.2%보다 0.7%p 하락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한자리 수치로 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내국세의 19.24%로 동결돼 온 지방교부세 비율을 21.24%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부세 산정방식도 문제다.

■ 강원도 교부세 교부결정 내역 현황('11년~'15년) (단위 : 백만원)

단체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강원 계	2,828,357	3,250,067	3,524,686	3,580,634	3,486,602
분청	555,589	672,226	700,632	715,251	738,477
시군 계	2,272,768	2,577,841	2,824,054	2,865,383	2,748,125
춘천	217,807	245,055	263,268	267,307	253,153
원주	180,687	210,485	240,995	243,724	240,794
강릉	218,728	244,769	266,753	269,335	256,551
동해	100,233	87,086	105,503	107,777	101,716
태백	89,282	91,205	101,874	103,973	99,269
속초	77,745	83,218	83,967	84,811	76,480
삼척	181,623	199,340	209,197	210,633	202,115
홍천	159,417	201,276	219,589	223,462	211,839
횡성	127,531	139,028	146,830	148,793	150,556
영월	117,581	131,649	141,664	137,420	132,012
평창	110,273	142,370	163,400	167,729	157,506
정선	104,664	116,591	128,293	133,800	123,999
철원	121,105	136,075	153,804	155,501	158,940
화천	97,963	112,080	121,097	122,639	116,487
양구	87,753	100,316	104,596	103,879	106,097
인제	117,460	148,360	161,741	163,067	151,182
고성	84,403	100,202	112,534	116,853	109,974
양양	78,513	88,736	98,949	104,680	99,455

정부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을 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 징수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늘면 교부세는 줄어드는 현행 산정 방식으로는 자체 세입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교부세 산정 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물론 지방세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시키는 것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김 동 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도회장

28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도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동호(49) 신임 회장은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적극 해결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대외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소감을 피력.

김 회장은 강릉 출신으로 주 문진수산고 통신과를 졸업했



다. 정보통신공사 도회 운영위원,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전문기자문단위원, 품셈적산기술위원회 위원, 명성이엔지 대표를 맡고 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